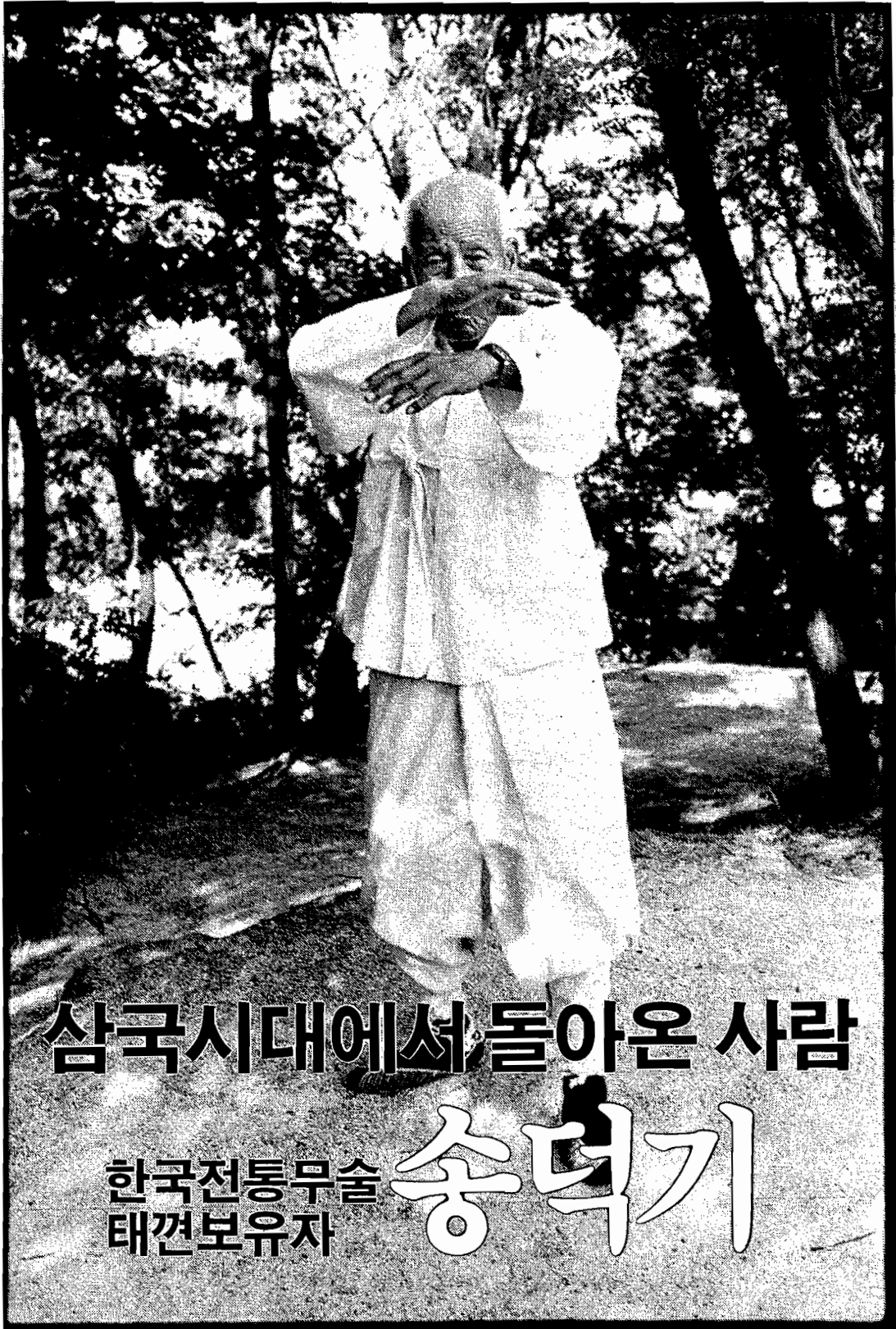


뜻밖의 이야기  
같은 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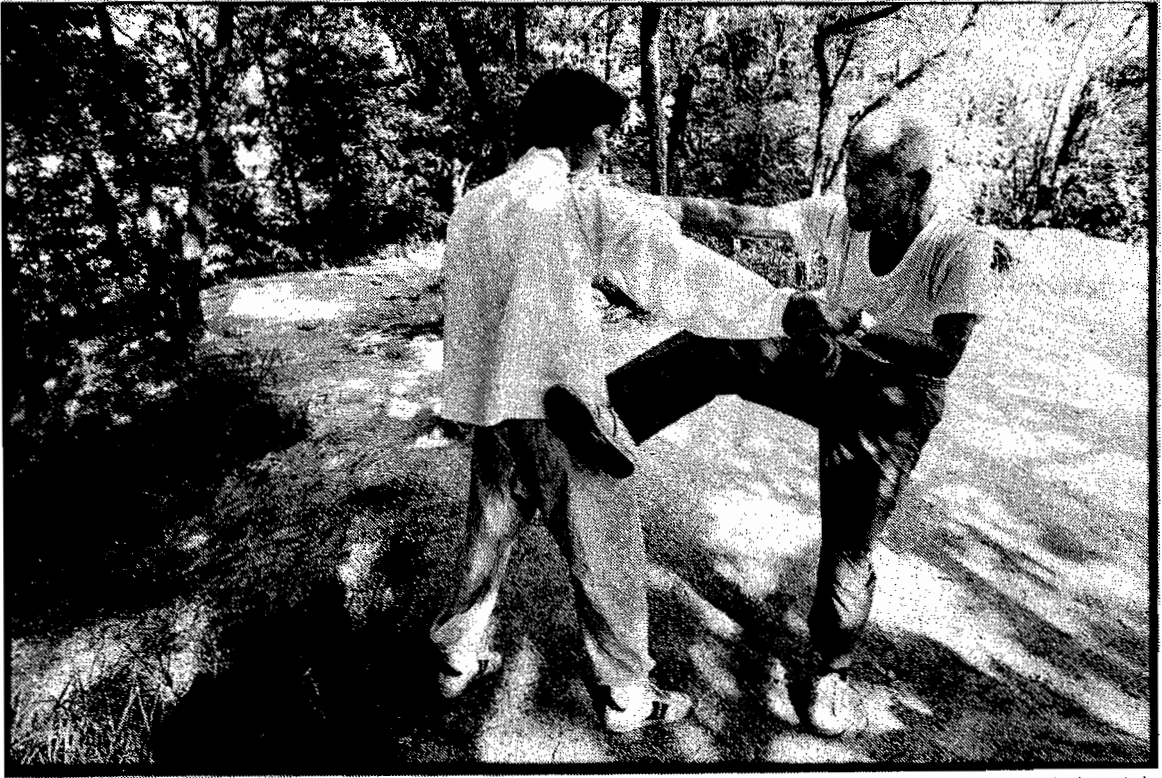


# 삼국시대에서 돌아온 사람

한국전통무술  
태권보유자

# 송덕기

글/하재봉 기자 사진/강재윤 기자



전통무술인 태권의 대가 송덕기 옹이, 제자들에게 직접 비술을 전수하고 있다

■ 아니라, 그가 바로 끊어지는 우리 고유의 무술, 태권의 마지막 보유자라는 점이다.

새벽 5시. 새들은 벌써 일어나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닌다. 풀잎 위에는 이슬방울, 어느 새가 저토록 아름다운 알을 낳았을까? 나뭇잎들이 이루는 궁륭의 천정 위에 어느새 푸른 빛이 어른거린다. 그렇다. 이제 나무들은 서서히 몸을 움직여 태양을 향한다.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사직공원. 오른쪽에 있는 수영장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어느새 시끄러운 세상은 사라지고 오래된 숲과 바위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이 나타난다. 새벽 5시에 이 길을 따라 황학정, 약수터까지 가 본 사람은 안다.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 한 분이 정정한 걸음걸이로 산책하는 것을. 그가 지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무들도 나뭇잎의 빛나는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한다.

송덕기(宋德基)옹. 올해 아흔 일곱. 1백세를 눈 앞에 두었지만 그의 붉은 혈색이 도는 얼굴, 곧은 등, 정정한 걸음걸이를 본 사람은 그의 나이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인도 다만 몇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백세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흔 일곱쯤 되었을 것이란다. 해방 후 정리된 호적에는 아흔 넷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가 나이에 비해 놀랄만큼 정정하다는 것이

■ 오후 3시 황학정. 서초 오사정의 하나인 필운동 등과정터인 이곳은, 유형문화재 제25호로서, 조선 고종 광무 2년(1898)어명에 의해 경희궁 회상전 북쪽에 지었던 것을 1922년 현위치로 이전하여, 마지막 궁술 연마장으로 쓰여졌다. 태양이 서쪽으로 점점 기울어 이 시각, 활터에서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 속의 검은 점, 흑점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들로 가득찬다. 근처의 바위나 나무그늘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누워 있거나 앉아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조금 아래 사직노인정에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로 가득하다.

임산근저 팻말이 붙어있는 철책위 야산에서는, 그러나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것같이 이상한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러는 한복을 입고 땀을 내고 땀을 신고 있고, 또 몇몇은 더위에 옷을 벗어 체천 사람들도 있다. 모두 20대의 건장한 사내들이다.

송덕기 옹은 한쪽 옆에서 그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매로 주시하고 있다. '견주기'라고 부르는 두 사람의 대련연습이 끝나면, 그는 그들의 걸음을 지적하고 고쳐준다.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한 동작 한 동작 바로잡는다. 3, 4년 전만 해도 민첩하게 몸을 놀렸지만 지금은 기력이 많이 쇠해서 예전같



은 활발한 움직임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매서운 맛은 가시지 않았다.

혹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춤을 추거나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기 쉽다. 그만큼 태권은 다른 무술에 비해 곡선적이고 부드러우며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유내강, 바로 그 말처럼 부드러움 속에는 한없는 힘이 숨어 있다. 그는 지금까지 태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쩌면 틀린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그의 삶은 태권만으로 일관되었다. 슬하에 자식 하나도 없고, 외롭게 서로 의지하며 살던 부인도 4년전에 세상을 떠났다.

태권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것은, 지난 1983년 6월 1일. 그때 송덕기 용은 무술부문으로서 유일하게 인간문화재(제76호)로 지정되어, 우리 전통무술인 태권의 맥을 잇는 사람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전통문화 보존이란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수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중요한 우리 전통무술인 태권이 너무 방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무술의 맥을 이어볼 생각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만으로는 전통문화 보존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송덕기 용은 사직동에서 태어나 6.25전쟁 때 잠깐 피난간 것 이외에는, 평생동안 사직동을 떠난 적이 없다. 6.25때는 경남 밀양으로 피난을 갔는데, 부인과 단 두 식구 뿐이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매일 마작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던 다.

송덕기 용의 전수제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준서씨(25세)는, 현재 경희대 한의대 재학중으로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송덕기 용을 어려서부터 흠모해 왔다. 현재 송용에게 태권을 전수받고 있는 제자들은 이준서씨를 비롯한 8명. 이준서씨는, 처음에는 책임감 같은 것은 모르고 태권을 배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고유무술을 지켜가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원형을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할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셔서 걱정이 돼요. 태권이 어떤 뚜렷한 체계가 있어서 하는 무술이 아니고, 자연의 순리랄까, 그런 것을 깨우치면서 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자연히 할아버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배우게 됩니다. 지금 어느정도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반 조금 넘게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92년 1월 19일, 한양 사직골에서 송태희(宋泰熙)씨의 7남 7녀 중 막내로 태어난 송덕기 용은, 13세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태권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태권의 일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의 부친 역시 당시 태권의 고수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태권을 전수해 주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그가 18세 되던 무렵, 아버지의 친구인 임호(林虎)선생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태권의 비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임호 선생은 당시 태권계의 제 1 인자였는데, 송덕기 용의



신체가 좋고 몸놀림이 유연하여 그를 제자로 삼은 것이다. 그는 다른 6 형제와 함께 태권을 배웠으나 최후까지 남은 사람은 송덕기 웅 뿐이었다. 임호 선생은 임종시에 송웅의 배를 쓸어주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다는 표시였다.

태권은 긴 역사를 가졌지만 겨우겨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은 그 전수방법이 까다로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주로 사직동에 태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송웅의 기억에 의하면 서울주변에서 태권을 하는 사람들은 윗대패와 아랫대패로 나뉘어서 시합을 했는데, 윗대패는 성(城)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아랫대패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윗대패에는 송웅의 스승인 임호, 송덕기 등이 있었고 아랫대패에는 신재영, 김홍식, 박무경 등이 있었다. 태권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오 무렵에 이웃마을 태권패들과 시합을 하는 형식으로 벌어졌다. 단오날 밤에 한쪽에서는 그네 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 태권 시합이 열렸다고 한다.

마을 마다 각각 십사오명 정도의 선수를 뽑아, 이긴 사람은 계속 남아 끝까지 싸웠는데 한 사람을 이기면 한 마당, 두 사람을 이기면 두 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마당을 최고로 쳤다. 시합이 끝나면 이긴 쪽에서는 선수들을 술과 밥 등으로 며칠동안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태권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

지만, 여러가지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만주 죽안현 통구에 있는 고구려 시대의 무용총 벽화에 보면, 두 사람이 손과 발을 이용한 맨손 무예기술을 펼치는 그림이 있다. 또 황해도 안악군 유설리에서 발굴된 동수묘의 전실 동쪽 벽에서도, 태권 겨루기 자세를 닮은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런 사정은 신라, 백제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세 나라가 치열한 집전을 하는 과정에서, 심신을 단련하는 어떤 맨손 무예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맨손무예가 상당히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박’ 또는 ‘수박희’등으로 불리우면서 경기종목으로 자주 벌어졌으며, 왕을 비롯한 문무대신들도 이 경기를 즐겨 참관한 기록이 내려온다.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집권했던 무렵에는, 당시의 실력자인 정중부, 최충헌 등도 ‘수박’의 뛰어난 고수였다는 말이 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조선조 초기에는 수박이 무술의 한 종목으로 되어 병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동국여지승람〉에도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인 백중에는 인근 주민들이 모여 ‘수박’을 즐긴다는 기록이 내려온다. 또 조선조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싼 가운데, 씨름과 수박등을 겨루는 장면이 있다.

우리가 ‘수박’ ‘수박희’라고 부르는 맨손 무예는 사실 태권, 또는 택견, 덕견, 각희, 각술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워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태권도가 사실 이 태권에 그 맥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태권도와 태권은 여러 점에서 상이하고 또 여러점에서 비슷하다. 태권



이라는 말의 어원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탁견'(托肩) 즉 어깨를 미는 동작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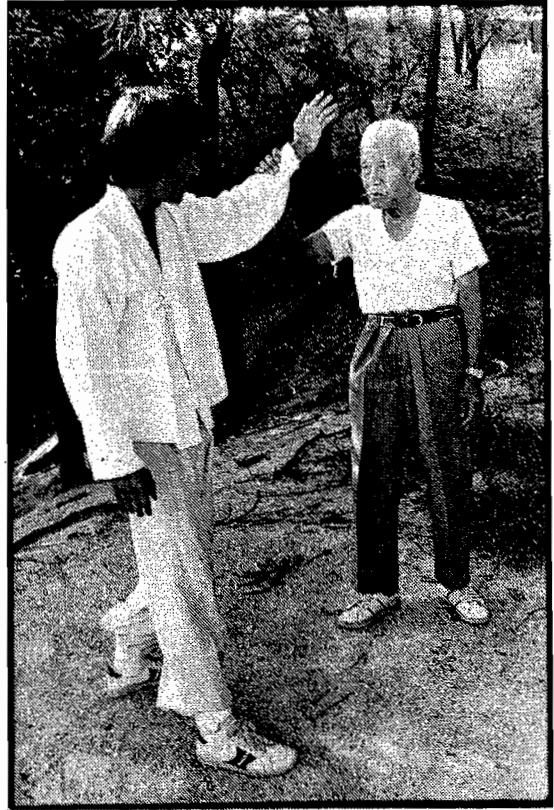
신체호의 <조선상고사>에는 '덕견' 안학의 <조선무사영웅전>에는 '택견'이라고 나와 있다. 구한말 최영년의 <해동운기>에는 '탁견'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태견의 정신은 다른 무술같이 뚜렷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자연철학, 도가의 무위사상 같은 것에서 그 근본정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 것이다. 평소 송옹은 제자들에게 '자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는 인위적인 모든 것을 아주 싫어한다. 태견은 힘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순응하면서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한 다.

평소에 송옹이 자주 하는 말은 첫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둘째, 대인관계에서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꼭 싸워도 되지 않을 때 싸우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의 수차다, 등이다.

태견의 기술체계 역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물리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변화 즉, 구름이 움직이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런 소소한 것같은 만물의 법칙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동작이 나온다는 것이다.

태견은 곡선적이며 부드러운 인체에 무리가 없어서 여자



들도 배우기에 좋다. 최근에 몇몇 젊은 여자들이 송옹을 찾아와 태견을 배우고 있다. 여자들이 해도 걸으로 뚜렷한 표시가 안난다. 다른 무술처럼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춤동작같은 움직임으로서, 기를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체원리에 맞게 자연적인 움직임을 따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그 정신의 깊어짐을 느낄 수 있다 한다. 에어로빅도 일종의 산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태견은 공기가 나쁜데서는 할 수 없는 운동이다.

송옹을 비롯하여 옛날 사직골 근처에서 태견을 배웠던 사람들은 서울 근교의 인왕산, 삼각산, 애오개 등지를 돌아다니며 각각 장소의 특성에 따라 연습하는 기술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입산금지로 되어있는 산이 많아, 옛날 그 자리에서처럼 태견을 익히기에는 제약이 많다.

운동을 오래하다 보면 몸안의 기가 저절로 유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술분야만큼 인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없다. 저녁공기와 아침공기가 다르다는 것까지 연구해서 수련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걸으로는 제일 체계가 안잡힌 것 같지만, 제일 심오하게 구성된 것이 태견의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무술이 장려 되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네들은 중앙 집권적 정부가 그리 쉽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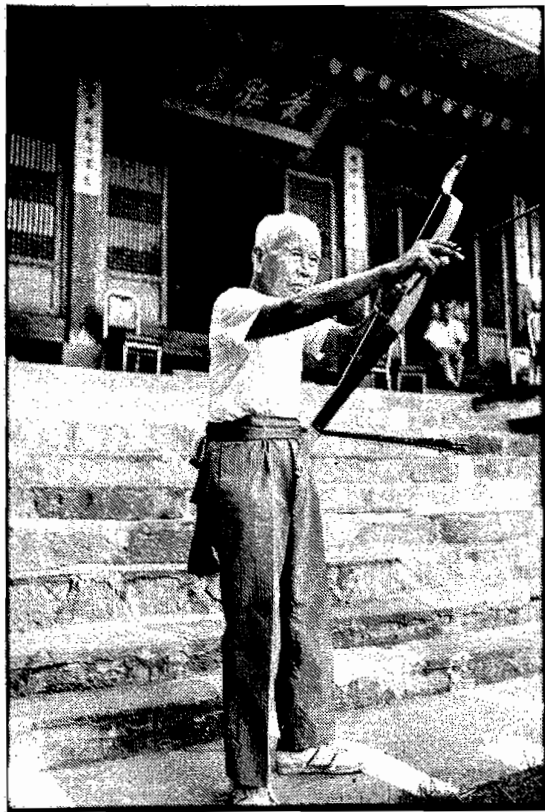
무술이 융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 아래서, 무술을 배우는 것은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장려되지는 않았었다.

원래 태권에는 공격용인 살수(殺手), 즉 위험한 동작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런 견제작용 때문인지 세월이 흐르면서, 살수는 많이 사라지고 대신 활수(活手), 즉 보호용의 동작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송용도 제자들에게 살수를 가르쳐 주기를 꺼린다.

처음 태권을 배울 때는 사람을 상대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짚으로 사람형용을 하여 만들고, 아랫도리를 형겅으로 동여 발길질을 하면서 익혔다고 한다.

기본동작은 품자 형에서 시작하는데, 발을 너무 벌려도 힘이 없고, 너무 좁혀도 넘어지기 쉬우므로 어깨 넓이로 알맞게 벌린다 그 상태에서 왼발을 어깨 넓이만큼 양발 사이의 앞으로 품(品)자가 되게 내딛으면, 좌품. 오른발을 내딛으면 우품이 된다. 이것의 연속동작이 품밧기이다.

태권의 동작은 이 품밧기와 활개짓(양팔을 앞뒤나 좌우로 크게 휘젓는) 그리고 발질, 손질 등이 있다. 특히 태권은 '각희'라고 불리울 정도로 발을 쓰는 기술이 뛰어나다. 황학정 정자 안에 4미터 정도의 높이가 되는 곳에 보가 걸려 있는데, 지금 부터 17년전 쯤에 송용은 그것을 뛰어 발로 찼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77세 되던 무렵이다. 이것은 지금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는 황학정 활터에 단골로 출입하면서 일종의 민간의사 역할도 했다. 각종 민간요법, 처방 등이 태권에도 전해져 내려와 그는 이것을



사직공원 내 야산 위에서, 오후 3시만 되면,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것같이 이상한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



지금 1백세를 눈앞에 둔 송용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도장을 하나 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의 전통무술인 태권을 보급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태권의 성질상 그 전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집념은 대단히 강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사직공원 건너편에서 단칸방을 얻어 기거하고, 끼니가 되면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형편이므로 그의 힘만으로는 사실, 도장을 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활방편이 별로 없던 그는, 3년전 인奸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비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다 늙어서 무슨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도장을 내 손으로 마련해 젊은 사람들에게 좀더 정확히 우리의 전통무술인 태권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뒤통을 지고 언덕길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쓸쓸하기만 하다. 한 사람의 노인이, 황혼녘의 구름빛을 받으며 길을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의, 전생애의 무게가 느껴진다.

“울 겨울만 지나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될거야”

그가 남긴 이 말은, 오랫동안 빈 하늘을 울리며 남아있다.

(\*)